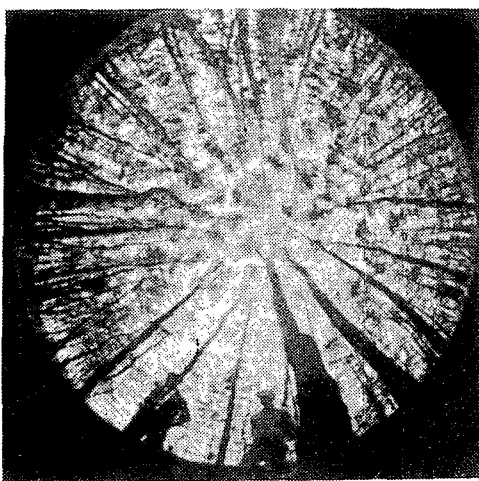


# 自然의 保全과 開發의 關係

外大중문과教授  
명예회원 조 회 환



山은 山다워야 하고  
江은 江다워야 하기

때문에 均衡적인 開發이  
요구된다.

때문에 環境保全의 문제도  
특정지역만 保全한다든가  
보이는 곳만 保全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1. 保全과 開發

인류는 근본적으로 자연환경의 한 부분이며 속속체이다. 그러나 인류의 번식과 욕망은 자연을 크게 좀먹고 있으며 그점에서 볼때 인류는 자연에 대한 최대의 훼손자이기도 하다. 이대로 간다면 인류의 생활터전을 스스로 잠식 및 오염시켜서 자살환경을 촉진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인류의 번식과 욕망이라는 것도 자연의 섭리에 의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만 하는 것도 자연의 이치(天道)에 어긋난 것이므로 최선은 아니다. 따라서 영리한 인류는 벌써부터 자손을 번식은 하면서도 억제

하고 자연을 개발은 하면서도 보전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만물의 영장인 인류는 지구 자체를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구촌의 생태계를 부분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더 많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생태계의 지배자인 인류이기에 앞으로도 자연환경을 꾸준히 개발 또는 개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류의 욕망은 선과 악을 兼有하고 있어서인지 인류에게 유익한 원자력발전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살상하는 원자탄도 만든다. 마찬가지로 개발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서 자연환경의 改善만이 아닌 改惡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견지에서 개발이 불가피한 것



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인위적인 자연개조에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내재한다. 필자는 환경연구 전문가가 아니어서 나름대로의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개발과정에서 적어도 다음 세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본다.

## 2. 開發의 원칙

첫째, 균형잡힌 개발이 요망된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본위에서 본 입장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위의 역할도 강조한 입장이기도 하다.

즉, 획일적으로 모든 山은 山다워야 하고 江은 江다워야 한다. 또 이 지역 山河나 저 지역 山河가 끌고루 山河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山만 보전시키고 江을 버려둔다거나 이 江만 보전하고 저 江은 버려두는 식의 불균형은 좋지 않다.

“開發의 원칙은 첫째, 균형잡힌 개발. 둘째, 産業과 조화된 개발. 셋째, 자손만대를 위한 開發이어야 만이 環境을 保全할 수 있는 최선의 요소이다.”

이는 반드시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시켜 저쪽의 해독이 반드시 이쪽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 산에 송충이가 없다고 안일하면서 저 산을 방치하면 언젠가는 저 산의 송충이가 이 산으로 반드시 전파될 것이며 강만 가꾸고 山을 황폐시키면 반드시 홍수와 토사로 강도 망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왕에 자연의 보호에 힘쓴다면 그 노력은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수행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과 조화된 개발이 요망된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 양자를 본위로 한 견해로서 자연은 최대한 자연다우면서 거기서 인류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자연에서 무엇을 향유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다. 누구는 시를 읊을 것이요 누구는 사색을 즐길 것이며 누구는 관광을 즐길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자연에서 무엇인가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즉, 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림·수산업등 1차산업을 위해서는 농토가 농토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농현상이 없게 해야 되며, 산에 잡초만 무성하다면 목재나 과일을 소득할 수 있는 수종개량을 통해 산의 면모는 지니면서 인류의 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2차·3차산업을 위하여 공업단지과 고속도로 등을 조성하는데 그 부지는 최대한 1차산업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청론탁설로 보기 쉽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반격하자면 오늘날 버려진 농토와 해변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자손만대를 위한 개발이어야 한다.

이는 이기적으로 순수히 인류본위에서 본 입장이지만 역설적으로 자손만대를 위하여는 최대한의 보전과 최소한의 개발을 전제로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대자연은 크게 훼손되었다. 비록 동해나 남해바다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유익한 자원은 크게 감소되었고 광산도 거의 고갈의 지경에 와 있다. 이대로 가면 10세대 이후의 후손의 생계가 걱정되며 100세대 이후의 걱정은 더욱 커진다.

인류는 靈·肉 양면에서 결합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어떤 偶像에 끌리기 쉽고 자만에 빠지기도 쉽다. 60년대 이후 “소비가 미덕이다”는 우상에 매혹되어 지금까지 모든 자원을 있는 대로 낭비하기에 진력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쌀이 없으면 대체식품이 개발된다”고 자만하였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소비를 조장한 것은 선진국의 상업진흥을 위한 발상이었는데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음을 오늘날에야 깨닫기 시작했다. 또 대체식품의 개발에서

개발이라는 명분에 사로 잡혀 자연환경의 개선만이 아닌 改惡도 할 수 있는 우리는 적극적인 견지에서 개발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인위적인 자연개조에는...

도 인류는 단지 과학의 신비성과 무한한 가능성만 있었지 과학이 복만 주는 것이 아니고 화도 똑같이 준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모름지기 자연의 개발에는 먼 장래의 복지나 전략등 여러 가지의 안목을 갖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 3. 自然의 再認識 :

자연환경과 인류의 相互作用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서로 先後와 優劣을 가릴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인류에게 주는 어떤 영향보다도 자연환경이 주는 그것보다 더 큰것은 없다. 대체로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인류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은 경망스러운 표현이고 개간·등반 등의 겸손한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더 폭넓고 互惠의인 개념의 「調和」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만든 정치·경제·종교등 넓은 의미의 문화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만든 제도·이념 그리고 一世를 풍미한 지도자등 문화요소의 어느 하나도 시작과 종말이 있어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연은, 이를테면 한강이나 소백산맥은 태고적이거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여기에 자연의 묘미가 있고 우러러보아야 할 진가가 있다.



따라서 인류가 땅을 개간하고 방조제를 막고 지리산 정상을 등반하는 등 여러가지 작태를 일컬어 “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망스러운 것이고 차라리 개간·등반등 겸손한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더 폭넓고 互惠의인 개념의 “調和”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등반이나 항해 때는 반드시 현지 조건에 겸허하게 적응을 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자연답게 가꾸고 보전하여 우리의 생존과 자손만대의 생존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여야 함은 온당하고 겸허한 우리의 직분일 것이다. \*